

【논문】

『논리-철학 논고』의 무의미성*

—전통적 해석과 새로운 해석의 종합—

변영진

【주제분류】 언어 철학, 비트겐슈타인

【주요어】 『논고』, 강진호, 논리, 새로운 해석

【요약문】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의 6.54에서 그 저작의 모든 진술들이 결국은 ‘무의미하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논고』를 무의미성을 다루는 지금까지의 해석들(전통적 해석과 새로운 해석)은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필자는 『논고』의 무의미성을 적절히 해명하기 위해, 강진호의 논문 「『논리-철학 논고』의 ‘중대한 오류들’」에 주목한다. 강진호는 그의 논문에서 『논고』의 무의미성이 ‘새로운 해석’(또는 ‘단호한 해석’)의 보완을 통해 해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강진호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그의 문제는 ‘새로운 해석’을 ‘전통적 해석’을 통해 정말로 개선하지 않은 점에 있다. 필자는 그 결점의 해결을 통해 『논고』의 무의미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

이 글에서는 『논리-철학 논고(*Tractatus logico-philosophicus*)』(이하 『논고』로 약칭)의 무의미성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평을 주신 익명의 세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몇몇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글의 주제를 벗어나는 비판점에 대해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 앞으로 별도의 연구에서, 특히 그 비판적인 측면을 재고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논고』의 가장 후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명제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해서 하나의 주해 작업이다. 즉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만일 그가 나의 명제들을 통해—나의 명제들을 딛고서—나의 명제들을 넘어 올라간다면, 그는 결국 나의 명제들을 무의미한(unsinnig) 것으로 인식한다. (그는 말하자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는 그 사다리를 던져 버려야 한다.) 그는 이 명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세계를 올바로 본다.” (6.54)²⁾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을 이해하는 자들이 『논고』의 진술들을 결국 무의미로 인식할 거라고 확고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무의미한 진술들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과연 어떻게 『논고』를 무의미하게 읽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크게 ‘전통적 해석’과 ‘새로운 해석’으로 구분된다.³⁾ 하지만 양 방향 모두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전통적 해석의 연구자들은 『논고』의 무의미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 그들은 여느 철학책을 해석할 때처럼 『논고』의 진술들을 ‘유의미하게’ 읽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전통적 해석의 학자들은 그 핵심 사상이라고 보는 존재론, 그림이론 그리고 유아론 등을 『논고』의 중심 내용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들은 『논고』의 무의미성을 진지하게 다룰 수 없다. 『논고』의 진술들을 ‘무의미하지 않게’ 해석함을 목적으로 두는 한,

-
- 1) 이 글에서 『논고』 인용은 이영철 (2006)의 번역에 따라 하겠다. 『논고』 인용의 출처는 관례에 따라 진술의 해당 번호로만 표시하겠다. 예외적으로 『논고』 머리말의 인용에는 단지 ‘머리말’이라고 밝히겠다.
 - 2) 6.54 이후에 나오는 『논고』의 유일할 내용은 7의 다음 한 문장이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 3) 『논고』의 ‘새로운 해석’은 코라 다이아몬드(Cora Diamond)의 1988년 논문 “Throwing Away the Ladder: How to Read the *Tractatus*”로부터 시작되는데, 대략 그 이전의 연구 경향 모두는 ‘전통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해석의 옹호자는 대표적으로 제임스 코난트(James Conant, 1989)와 마이클 크레머(Michael Kremer, 2001) 등을 들 수 있는데, 현재 특히 북미에서 지배적이다. 그리고 전통적 해석의 측면에서 새로운 해석에 대한 비판은 피터 해커(Peter Hacker, 2000), 하워드 마운스(Howard Mounce, 2001) 그리고 이안 프로프스(Ian Proops, 2001) 등이 있다. 전통적 해석과 연관하여 새로운 해석의 의의에 관해서는 볼프강 킨즐러(Wolfgang Kienzler, 2008)를 참조하시오.

비트겐슈타인의 6.54 진술은 결국 무시될 수밖에 없다. 반면 최근 20여 년간 새로운 해석의 경향에 있는 학자들은 『논고』의 무의미성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해석하는 것 같다. 새로운 해석 또는 ‘단호한 해석’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논고』의 6.54와 7 그리고 머리말의 내용만을 비트겐슈타인이 진지하게 주장하는 내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⁴⁾ 그리고 그 외의 『논고』 내용은 어떠한 의미도 갖고 있지 않음을 주저 없이 ‘단호하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로운 해석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 해석의 맹점은 ‘왜’ 『논고』를 무의미하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에 있다. 새로운 해석의 연구자들은 다시 『논고』의 특정 진술들의 이해에 의존해서 언어의 무의미성을 규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논고』를 단호히 무의미하게 읽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스스로 어기게 되는 셈이다.⁵⁾ 필자가 보기에, 전통적 해석과 새로운 해석 그 어느 한쪽의 해석만으로 『논고』의 무의미성을 설득력 있게 규명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 해석과 새로운 해석의 화해를 모색하여 『논고』의 무의미성을 해명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논고』의 무의미성을 다루는 강진호의 「『논리-철학 논고』의 ‘중대한 오류들’」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해하는 한, 강진호의 논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강진호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해석이 『논고』의 무의미성을 탐구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해석이 보완점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한다. 그것은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저작 『철학적 탐구(Philosophische Untersuchungen)』⁶⁾ 다음의 머리말 구절에서 나타난 『논고』의 “중대한 오류들”에 있다.

“[...] 4년 전에 나는 나의 최초의 저서(『논리-철학 논고』)를 다시 읽고 그

4) 토마스 리켓츠(Thomas Ricketts)와 워렌 골드파르브(Warren Goldfarb)는 다이아몬드의 ‘새로운 해석’을 옹호하면서, 그것을 또한 ‘단호한 해석(Resolute Reading)’이라 칭한다: Ricketts (1996), p. 93; Goldfarb (1997), p. 64. 그에 따라 최근 ‘단호한 해석’이라는 명칭이 보편화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새로운 해석’과 ‘단호한 해석’ 두 명칭을 그 문맥에 맞게, 의미의 차별 없이 사용하겠다.

5) 새로운 해석의 비판점에 관해서는 이 글의 3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6) 이 글에서 『철학적 탐구』의 인용은 이영철 (2006)의 번역에 따르겠다.

사고들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즉 나는 그 옛 사고들과 새로운 사고들을 함께 출판해야 할 것이라고; 후자는 오직 나의 옛 사고방식의 배경 위에서 그것과의 대조에 의해서만 올바른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16년 전에 다시 철학에 몰두하기 시작한 이래, 나는 내가 저 첫 번째 책에 수록해 두었던 것 속에서 중대한 오류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철학적 탐구』 머리말)

새로운 해석에 따라 『논고』의 진술들을 아무 내용 없는 무의미로 본다 면, 여기서의 언급은 문제가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 “중대한 오류 들”이 있다고 강조하여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뜻도 갖지 않는 무의미한 『논고』가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는 판단은 역설적으로 보인다. 강진호는 새로운 해석의 관점을 전통적 해석을 통해 보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는 논리 개념에 관한 부분에 한해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본다. 강진호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이해를 바탕으로 『논고』의 무의미성을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의 핵심은 사실 유의미하게 진술될 수 없음 자체에 있기 때문에, 『논고』에서 논리에 대한 진술들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강진호의 결정적인 주장이다. 나아가 강진호는 『논고』의 여타 진술들이 마찬가지로 논리 개념에 의거해 무의미하다고 해석한다. 그는 『철학적 탐구』가 지시하는 『논고』의 중대한 오류의 핵심이 ‘오직’ 논리에만 근거한 무의미성 파악에 있다고 주장한다. 『철학적 탐구』에 따르면 언어의 뜻 있음과 무의미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언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에 달려 있다. 언어의 쓰임 맥락은 다양하다는 것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핵심 주장들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논고』 진술들에 대한 무의미 판단은 심각한 결점으로 볼 수 있다. 강진호는 오직 하나의 고정된 맥락, 즉 논리에 따라 『논고』의 모든 철학적 진술들을 무의미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오류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논고』의 무의미성을 해석하는데 강진호의 논의가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논문 내용에 대해 잘못된 평가를 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강진호는 자신의 논의가 후기 철학의 관점에서만 『논고』의 전통적 해석을 취하고, 전기 철학의 입장에서는 단호한 해석을

옹호한다고 평가한다. 필자의 비판은 강진호의 해석이 어떻게든 옳이 단호한 해석으로 일관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오히려 필자는 그의 관점이 『논고』의 전통적 해석과 새로운 해석의 진정한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강진호의 논 의 형식을 빌려 그리고 그 내용과 연관지어 『논고』의 무의미성 해석에 집중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우선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과 관계하여 강진호가 어떻게 『논고』를 단호하게 읽으려 하는지 살펴보고, 어디에서 그의 의견이 결점을 가지며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 지 논의하겠다(2장). 그리고 이 글에서 새롭게 보완된 해석이 새로운 해석과 전통적 해석을 어떻게 본격적으로 화해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3장).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주장하는 해석의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겠다(4장).

II

강진호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이 TF-표기법을 중심으로 제시된다는데 그 특별함이 있다고 본다. 그는 TF-표기법이 요소명제의 참, 거짓의 가능성 있음을 전제하여 구성된다고 보는데, 다음의 예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p	q	
T	T	T
F	T	T
T	F	T
F	F	F

(표 1)

여기서 ‘T’ 그리고 ‘F’는 어떤 무엇을 표현하는 기호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어떤 뜻 있는 명제가 두 가지, 즉 참과 거짓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뜻 있는) 명제 p와 q가 있을 때, 그들이 참,

거짓 가능성을 가짐은 네 가지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표 1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열의 표현 내용이 그것이다. 세 번째 열에서는 ‘또는’(‘ \vee ’)을 포함하는 복합명제 ‘ p 또는 q ’(‘ $p \vee q$ ’)의 참, 거짓 가능성이 자동적으로 표기될 수 있다. 여기서 명제 p 와 q 는 복합명제(‘ p 또는 q ’)의 구성요소를 이룬다는 점에서 요소명제라 칭해진다. 표 1의 종합적인 내용은 또한 『논고』에서 간단하게 “(TTTF)(p, q)”로 표기되고 있다(5.101). 강진호는 어떤 명제의 뜻 있음을 간단히 ‘T’와 ‘F’의 표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명제의 뜻 있음(Sinnhaftigkeit)은 TF-표기법을 통해 이미 완전하게 표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라는 명제가 뜻을 가진다는 것은 ‘T’와 ‘F’의 기호 명기로 표현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강진호는 논리적 추론이 TF-표기법에 의해 이미 언어 내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요소명제들의 참-거짓 가능성만 주어진다면 명제들 간의 논리적 추론관계 이해는 자동으로 따른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강진호는 명제들 간의 논리적 추론이 어떠한 논리 법칙의 전제 없이 TF-표기법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그러니까 표 1은 논리 법칙 없이 ‘ p 또는 q ’가 ‘ p ’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됨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TF-표기법은 ‘ p ’가 참일 때 ‘ p 또는 q ’가 참일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강진호는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는 논리 본성의 핵심이 논리적 추론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리적 추론을 이루는 기호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참(T)’과 ‘거짓(F)’은 각각 언어 외부적 무엇을 표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호는 요소명제의 뜻 있음을 말하거나, 요소명제들이 ‘또는’과 같은 기호들로 결합될 때 복합명제의 진리성을 제시할 뿐이다. 그리고 ‘또는’과 같은 기호들 ‘그리고’, ‘아니다’ 등은 뜻 있는 요소명제들이 결합될 때 필요한 매개인데, 역시 무엇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로지 복합명제의 참, 거짓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일 뿐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무엇도 표현하지 않는 기호들을 이른바 논리상항들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논리적 상항들은 [그 무엇도] 대표하지를 않는다”고 말한다. 이 점은 『논고』 4.0312에서 “근본 사상”으로 제시된다. TF-표기법에서 기계적으로 제시되는 논리적 추론의 내

용은 논리상항들, 즉 사이비 표현들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강진호는 TF-표기법에 의해 논리적 추론이 제시되지만, 그 내용인 논리는 없다고 본다. 그는 결론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에 관한 어떠한 독특한 사상도 주장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것은 애당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하는 독특한 사상은 논리에 대한 뜻 있는 진술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질문 역시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강진호가 이해하는 논리 본성이 비트겐슈타인의 진정한 사상이라고 전제할 때, 그것은 『논고』의 무의미성 해명에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강진호는 『논고』의 무의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말대로 ‘참’, ‘아니다’, ‘대상’과 같은 이른바 논리상항 표현들이 실제로는 모두 사이비 표현들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로부터, ‘참은 무엇인가?’, ‘부정은 무엇인가?’, ‘대상은 무엇인가?’와 같은 논리상항들의 본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아예 표현할 수조차도 없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논리상항 표현들이 모두 사이비 표현이라면, 논리의 본성에 대한 물음들 또한 모두 사이비 물음들이라는 결론이 따라나온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논리의 본성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답변이다. 그가 내리는 결론은 이 모든 물음들이 잘못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우리 일상언어에 있는 ‘아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참’, ‘동일하다’, ‘대상’, ‘사실’과 같은 사이비 표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물음들을 진정한 물음들로 잘못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논고』에서 논리의 본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진술들이 왜 진정으로 무의미한 진술들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가 논리의 본성에 대한 질문들을 물어볼 수 있고 답변들도 찾아낼 수 있다는 바로 그 가정 자체가 환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리에 대한 『논고』의 진술들이 정말로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의 본성에 대해 탐구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⁷⁾

7) 강진호 (2007), 140쪽. 여기서 강진호는 TF-표기법에서 사용되는 ‘아니다’, ‘그리고’, ‘참’, ‘거짓’등의 기호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용되지 않는 기호 ‘대상’, ‘사태’ 등도 논리상항들로 보고 있다. 강진호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에 대한 관심이 러셀의 논리학에

강진호는 논리적 추론이 논리상항들의 언어적 적용을 통해 제시된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논리적 추론의 내용은 유의미하게 진술될 수 없다. 그 내용은 오직 무엇도 표현하지 못하는 논리상항들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진호는 논리에 관한 『논고』의 진술들 모두를 결국 무의미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트겐슈타인의 궁극적 주장은 논리 개념이 적법하게 진술될 수도 없고, 그러므로 그에 대해 질문할 수도 없음의 깨달음에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강진호는 『논고』에서 논리 외의 철학적 주제를 다루는 진술들의 무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우리가 앞에서 본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에 따르면, 문장의 의미는 다름 아닌 그 문장의 참-거짓 가능성이며, 논리적 추론들은 바로 이 참-거짓 가능성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철학적 진술들은 필연적으로 참이고 따라서 거짓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진술들은 의미가 없으며,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에 따르면, 그럴 경우 우리는 이 [철학적] 진술을 진정한 의미에서 부정하거나, 다른 문장과 선언으로 연결하거나, 또는 조건문의 전건으로 사용하거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어떤 진술을 진정한 의미에서 부정, 선언 문화, 조건문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진술이 참-거짓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⁸⁾

세계, 자아, 윤리 등 철학적 주제에 관한 『논고』의 진술들은 사이비 표현들이다. 사이비 표현인 이유는 그 진술들이 거짓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참인 한에서의 뜻만을 표현함에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하고 표상하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5.631)라는 명제는, 그것이 오직 참일 경우의 뜻만을 전제한다. 그 명제가 거짓일 때의 상황을 우리는 (그 명제를 통해) 이해하지 못한다. 그 의미는 뜻 있는 명제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철학적 주제에 대한 『논고』의 진술들은 참-거짓의 가능성을 갖지 못하므로 TF-표기법으로 표현될 수 없다. 그러

서 시작된다고 보는데, 특히 논리상항들에 관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러셀은 ‘대상’, ‘사실’, ‘사태’ 등의 존재론적 개념까지도 논리상항으로 취급하므로, 강진호는 그것이 비트겐슈타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강진호 (2007), 133쪽 참조.

8) 강진호 (2007), 141쪽.

므로 서로 간의 어떤 추론적 관계 또한 있을 수 없다. 철학적 진술들에는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논고』의 철학적 진술들은 TF-표기법으로 제시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그들 간 어떤 논리적 추론도 없다는 것이 강진호의 생각이다. 그는 『논고』의 철학적 진술들이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에 따르지 않으므로 무의미하다고 해석한다.

필자는 강진호의 『논고』 무의미성에 관한 논의가 그 틀에 있어서는 매우 매력적인 시도라고 생각한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을 전제할 때, 그에 따라 『논고』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해석의 틀이다. 하지만 그의 해석에는 부당한 내용이 있다. 『논고』의 무의미성 해석을 위한 논리 개념의 ‘적용 방법’이 그것이다. 강진호는 『논고』의 무의미성 해석을 위해 논리 개념을 두 가지 상이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을 『논고』의 논리에 대한 진술들에 그리고 『논고』의 철학적 주제에 관한 진술들에 각각 상이한 방법으로 적용하여 그 저작의 무의미성을 이끌어냈다. 그 두 방법의 테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논고』의 논리에 대한 진술들은 논리 개념을 뜻 있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 (2) 『논고』의 철학적 주제에 대한 진술들은, 거기에 논리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필자는 (1)과 관련된 강진호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강진호는 『논고』 진술들이 논리에 관해 적절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논리에 관한 진술은 사이비 기호들인 논리상항들로만 구성되므로, 뜻이 없고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을 부분적으로 『논고』 진술들을 통해 파악하였다. 강진호는 특히 그의 글에서 ‘근본 사상’이 언급된 4.0312를 인용하고, 그 고찰로써 TF-표기법의 의미를 이해하였다.⁹⁾ 비트겐슈타인의 ‘근본 사상’이 제시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9) 강진호 (2007), 134쪽. 강진호가 4.0312의 ‘근본 사상’을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무의미하지 않게 읽었음은 또한 단적으로, 위에서 인용된 140쪽에서 드러난다. 그는 거기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말대로”로부터 말을 시작하고, 4.0312의 ‘근본 사상’ 내용인 ‘논리상항 표현들이 사실은 모두 사이비 표현들임’을 기술하고 있다.

“명제의 가능성은 기호들이 대상들을 대표한다는 원리에 의거한다.
나의 근본사상은, ‘논리적 상황들’은 대표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실
들의 논리는 대표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4.0312)

강진호는 ‘참’, ‘거짓’ 그리고 ‘또는’ 등의 기호들이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 논리상황들임을 4.0312를 통해 확인했다. 그는 『논고』에서 진술되는 ‘논리상황들이 대표할 수 없음’을 ‘이미’ ‘무의미하지 않은’ 결정적인 사상으로 읽었다. 그러므로 그의 테제 (1)은 모순적이다. 강진호의 논의 틀에서 테제 (1)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1) 『논고』에서 논리에 대한 특정한 진술들은 논리 개념을 적절하게 담긴 하지만, 그 의미를 스스로에 적용해 본다면 무의미하다.

『논고』의 무의미성 해석을 위해, 우선 논리 개념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논리 개념의 이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논고』의 진술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논고』를 특정 부분 중심으로 유의미하게 읽어야 함을 뜻한다. 그를 통해 비로소 『논고』 진술들 전체를 무의미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제 수정된 관점에 따르면, 『논고』의 진술들은 그것들이 논리에 관해서건, 여타 철학적 주제에 관해서건 상관없이, 논리의 개념을 적용해 볼 때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참’, ‘거짓’ 그리고 ‘또는’ 등의 논리상황들로 이뤄진 논리에 관한 진술도 그리고 ‘세계’, ‘자아’ 그리고 ‘우리’ 등의 사이비 표현에 관한 철학적 진술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고 읽을 수 있다. 그것은 『논고』에 제시된 유일한 논리 개념이 적용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논고』의 무의미에 관한 테제 (1)과 (2)는 다음의 하나의 테제로 종합될 수 있겠다.

(3) 『논고』에서 제시된 논리 개념을 적용한다면, 『논고』의 진술들 모두는 결국 무의미하다.

강진호는 자신의 『논고』 무의미성에 대한 고찰이 전통적 해석과 단호한 해석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을 취할 경우, 나는 『논고』의 진술들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해석’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을 취할 경우, 나는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논고』 진술들의 무의미성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입론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전통적 해석의 견해에 동의한다. ‘단호한 해석’의 옹호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은, 비트겐슈타인 전기 철학에서의 무의미 개념 자체가 그의 후기 철학에서 바뀌어 버렸으며, 따라서 과연 『논고』 진술들이 무의미한가 무의미하지 않은가라는 질문 자체가 후기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 제기된 질문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는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옹호하고 있는 이른바 ‘입론’들이 『논고』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론들에서 나온 것이라는 전통적 해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입론’들이 오직 논리가 가진 최고의 보편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잘못된 그림만으로부터 나왔다는 나의 제안은 전통적 해석의 정신보다 오히려 ‘단호한 해석’의 정신에 더 가깝다. 그렇다면 나의 해석은 『논고』에 대한 전통적 해석인가, 아니면 ‘단호한 해석’인가? 둘 다 아닌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나는, 본 논문에서 제시된 해석이 전통적 해석과 ‘단호한 해석’의 장점들은 살리고 단점들은 제거했다는 점에서 양자에 대한 진정한 종합(synthesis)를 성취했다고 믿는다.”¹⁰⁾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논고』의 중대한 오류란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오로지 논리 개념에 의존하여 자신의 저작을 무의미하다고 판단함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 강진호의 생각이다.¹¹⁾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상항들(사이비 표현들)’을 포함한 모든 일상 언어의 용어들이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언어의 어떠한 사용이 적법하고, 어떤 다른 사용이 적법하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은 전기 때의 생각처럼 획일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철학적 진술들의 무의미성을 판단할 일반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어떤 특정한 진술은 그 언어가 사용된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뜻 있을 수도, 또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다. 강진호는 동시에 자신의 『논고』 무의미성에 대한 고

10) 강진호 (2007), 152-153쪽.

11) 여기서 강진호의 주장은, 이 글에서 새롭게 수정된 해석과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하나의 유일한 논리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진호의 지적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과연 ‘중대한 오류들’의 핵심이 될지에 관해서는 이 글의 논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겠다.

찰이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전통적 해석의 경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6.54의 진술을 말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논고』를 새로운 해석의 입장에서 ‘단호히’ 무의미하게 읽었다고 본다. 그는 『논고』의 무의미성을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본성을 기준으로 파악했는데, 정작 『논고』의 어떤 진술도 그 (논리 본성) 내용을 ‘무의미하지 않게’ 서술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지적했다시피, 강진호는 『논고』에서 4.0312를 중심으로 논리에 대한 사상을 유의미하게 해석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는 후기 사상의 입장에서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중대한 오류가 ‘단일한’ 언어의 사용 규칙에 따라 그 무의미성이 규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단일한 언어 사용규칙에 대한 이해는 무엇으로부터 가능한가? 그것은 『논고』에서 제시된 논리에 관한 유의미한 사상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강진호는 비트겐슈타인의 ‘근본 사상’인 ‘논리상항들이 대표성 없음’을 중심으로 『논고』의 무의미성을 파악했다. 그는 결국 『논고』 전체를 단호히 무의미로 읽었다고 볼 수 없다.

III

필자는 강진호의 고찰이 단호한 해석에 부합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비판은 나아가 단호한 해석을 옹호하는 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논고』에 대한 단호한 해석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해석의 선구자 격에 있는 코라 다이아몬드(Cora Diamond)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¹²⁾ 다이아몬드가 전통적 해석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논고』를 무의미하게 봐야 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6.54)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논고』의 진술들을 유의미하게 읽으면서 6.54의 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주저

12) 여기서 제시되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비판은 피터 해커(P.M.S. Hacker)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Hacker (2000), pp. 359-361. 해커는 전통적 해석의 옹호자로서, 새로운 해석의 주장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한다. 하지만 그는 『논고』의 무의미성을 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글에서 필자의 의견과 다르다.

하는 전통적 해석 경향을 ‘두려워함(chickening out)’이라 비판한다.¹³⁾ 전통적 해석의 옹호자들은 사다리를 걷어차는 시늉만 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오히려 『논고』를 통해 비트겐슈타인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점은 그 진술들이 어떤 내용도 갖지 않음, 즉 그 무의미성을 깨닫는데 있다고 본다. 『논고』의 진술들이 말 되어질 수 없는 무의미한 언어라면, 그를 통해 어떤 이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이아몬드의 주장은 6.54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논고』의 무의미성 관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이아몬드는 『논고』의 무의미성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논고』의 진술들은 그 스스로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그 진술들은 형식적 속성들 그리고 관계들을 비형식적인 속성들과 관계들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논고』의 진술들에서 ‘세계’, ‘사태’, ‘숫자’, ‘대상’, ‘명제’ (그리고 등등)과 같은 단어들은 그 사용에 있어 어떠한 의미도 부여받지 못한다.”¹⁴⁾

‘세계’, ‘사태’ 등의 개념어들은 사이비 표현들이고, 그에 대한 진술들로 구성된 『논고』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강진호의 생각과 유사하다). 그런데 문제는 다이아몬드의 언어의 무의미성 규정에 관한 이해가 다시금 『논고』 진술들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사이비 개념어가 “고유한 개념어로서 쓰이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무의미한 사이비 명제들이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다(4.1271). 그는 또 『논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식적 개념들은 고유한 개념들처럼 함수에 의해서 묘사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형식적 개념들의 표지들, 즉 형식적 속성들은 함수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4..126). 다이아몬드의 언어의 무의미성에 대한 이해는 『논고』의 사상 4.126, 4.1271 등에 따른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논고』의 진술들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어떤 (철학적) 내용도 이해 불가능하다고 전통적 해석을 비판한다. 하지만 그 비판은 그녀 본인에게도 유효한 비

13) Diamond (1988).

14) Diamond (1995), p. 629.

관임이 드러난다. 그녀는 『논고』의 6.54와 7 그리고 머리말 이외에는 그 어떤 진술도 무의미하지 않게 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녀 본인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함’의 해석을 하고 있다.

새로운 해석에서 주장하듯이 『논고』의 무의미성 관정을 단호하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새로운 해석의 난점은 비트겐슈타인의 진술과 그의 생각 사이의 부조화에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논고』 6.54에서 자신의 저작을 무의미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무의미성의 근거를 다시금 그 저작의 진술들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해석에서 『논고』의 틀로 주장하는 6.54, 7 그리고 머리말에서는 그 근거가 없다. 필자는 ‘미흡한’ 새로운 해석에 전통적 해석의 요소를 가미해야만 『논고』의 무의미성을 설득력 있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를 위해 위에서 살펴본 강진호의 고찰은 새로운 해석과 전통적 해석의 본격적인 ‘종합’(또는 ‘화해’)를 성취하는데 그 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논고』 6.54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저작의 무의미성을 ‘애당초’가 아니라 “결국(am Ende)” 깨달아야 한다고 언급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강진호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을 우선 확정짓고 그를 통해 『논고』의 무의미성을 판단하는데, 그의 시도는 『논고』가 ‘결국에는’ 무의미하다고 해석하는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4.0312의 ‘근본 사상’을 근거로 『논고』의 무의미성을 타당하게 인식할 수 있다. 4.0312 외에 『논고』 그 어디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의 ‘근본 사상’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 ‘근본 사상’을 『논고』의 무의미성을 해명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근본 사상’이 의미하는 논리의 본성을 그 저작의 진술들에 적용해 본다면, 그 모든 철학적 진술들이 ‘결국’ 무의미하다고 깨달을 수 있다. 논리 본성을 그것을 발견했던 ‘근본 사상’의 진술(4.0312) 스스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함으로써, 그 진술의 무의미를 ‘결국’ 인식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논고』의 무의미성에 대한 단호한 해석의 난점을 전통적 해석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되는 『논고』의 무의미성에 대한 주장이 전통적 해석의 한 경향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통적 해석의 결론적인 주장은 존재론, 그림이론, 유아론 등의 유의미한 사상에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해석의 학자들은 『논고』의 유의미한 해석을 중심으로 그 사상을 다룬다. 이 글에서 다루는 『논고』의 주제와 연관할 때, 전통적 해석은 단지 논리 개념 자체가 무엇이나에 초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비트겐슈타인의 핵심 주장은 전통적 해석의 관점을 극복하는 시도에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에서 주장하는 독특한 논리 개념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것은 ‘올라타는’ 사다리의 중간 다리들에 해당한다.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정말 “그 사다리를 던져” 걸어차는 것이야 말로(6.54) 비트겐슈타인의 궁극적 주장이다. 그 저작의 무의미성을 깨달아야만 한다. 제시된 논리 개념을 적용했을 때, 결국 『논고』의 무의미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주장이다. 논리 개념을 기술했던 자신의 진술들까지도 포함한 철학적 진술 일반은 결국 논리 개념에 부합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이 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언어의 무의미성 규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논고』의 무의미성에 관한 해석은 논리에 대한 진술을 우선은 유의미하게 봐야함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결국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어떻게’ 우선은 의미 전달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무의미로 판단하는 진술과 애당초 무의미한 진술의 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무의미한 두 명제를 살펴보자.

- A. 소크라테스는 동일하다.
- B. 논리적 상황들은 대표하지 않는다.

명제 A와 B는 무의미하다. 무의미성의 이유는 A, B 두 명제가 마찬가지로 참-거짓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의 무의미성을 규정하는데 두 가지 구분 논리는 있지 않다. 강진호가 TF-표기법과 관련하여 설명했듯이, 언어의 무의미성에 대한 구분은 논리 개념에 기인한다. 하지만 무의미한 언어들 간에도 차이점이 또한 있다. A와 같은 무의미한 명제를 통해 독자는 어떤 내용도 인식할 수 없다. 하지만 B와 같은 무의미한 명제는 경우가 다르다. B 명제를 통해 독자는 A와 다르게 어떤 내용을 이해하

게 된다. 그것은 B 명제가 A 명제와 달리, 참일 경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¹⁵⁾ 단호한 해석의 학자들은 언어에 대한 두 가지 무의미성 규정이 있을 수 없으므로, 무의미하다고 규정되는 B와 같은 명제를 통해 어떠한 뜻도 전달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다리의 맨 위에서 거꾸로 내려가는 해석’일 것이다. B와 같은 명제들의 이해를 통해 ‘우선은 사다리를 타 오를 때, 비로소 걷어찰 사다리 위에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다.’¹⁶⁾ 『논고』 이후의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그 저작(『논고』)의 내용에 관해 진술했다. 강진호도 밝혔다시피,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의 논리 개념에 해당하는 요소명제 그리고 진리함수론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¹⁷⁾ 거기서 그의 진술들은 6.54에 따라 결국은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헛소리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전 자신의 저작 내용에 대해 어떤 내용도 없는, 그러니까 A와 같은 어떤 뜻도 없는 무의미한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제시되는 『논고』의 무의미성에 대한 주장은 다음의 글을 통해 종합될 수 있다.

“[...] 그리고 여기서 내 책에 대해 몇 마디 덧붙이면 아마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당신은 이 책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 그리 아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주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에 대해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의미는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는 머리말에서 한 마디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아마도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합

15) 물론 B 명제의 ‘뜻’이란 뜻 있는 명제의 온전한 ‘뜻(Sinn)’이 될 수 없다. B 명제는 거짓일 경우의 뜻을 갖지 않으므로, A 명제와 마찬가지로 뜻 있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글에서는 앞서(2장) 『논고』의 명제 “생각하고 표상하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5.631)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6) 이와 관련하여, 맥락은 다르지만, 단호한 해석의 몇몇 학자들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골드파르브는 온전히 뜻이 없는 『논고』 진술들에 대한 ‘과도기적(transitional)’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논고』 진술들의 ‘과도기적’ 이해가 있어야만 결국 『논고』의 무의미성을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Goldfarb (1997), 특히 p. 66.

17) 강진호 (2007), 153쪽.

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싶었습니다. 내 저작은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는 여기 기록된 것이고, 두 번째의 것은 여기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책의 내부로부터 경계 지어진 부분은 윤리적인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오로지 엄격하게 그렇게만 경계 지어져야 한다는데 확고합니다. 요컨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껄이는 모든 것이 헛소리임을, 나는 내 책에서 침묵함으로써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로 내 책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많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마 거기서 얘기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이 책의 의미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머리말과 후반부 진술을 읽기를 권합니다.”¹⁸⁾

이 글은 비트겐슈타인이 1919년 철학에는 거의 문외한인 친구 폰 픽커(von Ficker)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다. 여기서 『논고』의 윤리적인 것이란 그 논리 철학의 윤리성으로 볼 수 있겠다. 비트겐슈타인은 우선 『논고』를 이루는 내용이 그 저작의 한 부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해석의 주장은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은 또한 『논고』에는 실제로 진술되지 않은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해석에서처럼 어떤 특정한 사상들(존재론, 그림이론 등)의 주장을 『논고』의 최종 목적으로 볼 수 없다. 『논고』는 전통적 해석과 새로운 해석의 화해를 통해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논고』의 “내부로부터” 그 저작의 더 중요한 부분을 경계 지어진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내부로부터 경계 지음’이란 우선 『논고』의 근본 사상을 논리를 중심으로 보고, 그것을 다시금 그 저작에 적용함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6.54에서 명시되듯이 『논고』를 결국 무의미하다고 인식함에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이제 『논고』의 더 중요한 부분인 윤리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윤리적이고 중요한 것이란 『논고』에 실제로 진술된 내용이 아닌, 그 저작의 무의미성 인식에 대한 ‘가치’를 의미할 것이다. 그 가치는 『논고』의 진술들이 논리 개념에서 볼 때 실제로는 뜻 있을 수 없다는 인식에 있다. 『논고』의 무의미성에 대한 인식은 논리 철학의 실현에 대한 진지한 표현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논리 철학을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가 발견한

18) Wittgenstein (1980), S. 96f.

논리 철학의 내용이 우리의 언어 자체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철학 나아가 철학 일반의 한계를 절감하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선하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윤리학자가 실제로 악하게 ‘행동’한다면 그 주장의 설득력은 없다. 행위에 실제로 적용되어야만 그 주장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논고』의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든 진술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글에서 『논고』의 무의미성에 관한 고찰은 강진호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했다. 우선 그의 주장은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논고』의 무의미성 해명을 위해 그가 파악하는 논리 개념은 『논고』의 진술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필자는 『논고』의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그 저작의 무의미성을 판단하는 한, 새로운 해석의 옹호자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진호의 논의는 전통적 해석과 연계하여 『논고』의 무의미성 인식을 위한 기초를 제시한다고 보았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에 근거해서 『논고』의 무의미성을 적절하게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고』 진술들을 통한 논리 개념의 이해는, 그 진술들이 결국은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의미 전달 가능한 언어이므로 가능하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에 따르면 아무 뜻도 없어 보이는 언어뿐만 아니라, 표면상 뜻이 있어 보이는 언어 까지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논고』의 무의미성을 마침내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된 주장은 이른바 새로운 해석의 한계를 전통적 해석을 통해 보완한 종합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

IV

필자는 이 글의 논지가 『논고』 무의미성을 해명하는데 적절한 틀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충분치 못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논의로 이 글의 끝맺음을 할까 한다. 『논고』에서 논리에 관한 진술들은 분명히 그 일부에 불과하다. 그 외에 세계, 자아, 윤리 등에 관

한 사상이 그 저작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양쪽의 관계에 있다. 논리 이해에 관한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이 확정적일 때, 왜 그는 그 외의 철학적 진술들을 지금 『논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성했을까? 예를 들어, 비트겐슈타인은 『논고』 초반부에서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지,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다”라고 말한다(1.1).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에 따르면 이 명제는 결국 참-거짓 가능성을 갖지 못하므로 무의미한 언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왜 마찬가지로 무의미인 ‘세계는 사물들의 총체이지, 사실들의 총체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논리 외의 철학적 주제에 대한 진술 모두는 결국 무의미라고 판정되지만, 논리에 관한 진술처럼 우선은 그 뜻이 파악될 수 있는 언어이다. 이 글에서 『논고』의 무의미성에 관한 해명이 그 저작의 틀에 관한 해석이라면, 그 틀 안을 채우는 내용들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논리 본성에 관한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에 있을 것이다. 『논고』의 근본 사상이 논리 개념에 있음을 전제할 때, 그 외의 철학적 진술은 내용에 있어 그것(논리 개념)과 어떻게든(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관계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마침내 사다리를 걷어차기 전, 올라서야 하는 사다리들의 의미 관계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런데 강진호의 논의는 그 관계 내용을 해명하기에 부족하다. 강진호는 논리 개념을 포함한 어떠한 철학적 주제에 관해서도 『논고』에는 이해 가능한 진술이 일체 없음만을 주장하므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는 『논고』에서 진술된 논리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타 철학적 주제와의 관계 또한 고찰하지 않았다.

필자는 강진호가 주장하는 논리 이해가 그 내용에 있어 또한 충분하지 못함을 말하고 싶다. 그 점에 대해 『논고』 머리말에 관한 그의 해석을 통해 접근해 보겠다. 다음은 『논고』의 머리말 부분이다.

“이 책은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문제로 제기함이 우리의 언어 논리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내가 믿기에는—보여 주고 있다.”(머리말)

그리고 강진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사실 위에서 인용한 문단은 상당히 미묘한 함축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 ‘철학적 문제들’ 중 하나의 문제, 아니 비트겐슈타인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바로 언어의 논리의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인용문은 논리의 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 또한 우리가 논리의 본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귀결을 함축하고 있다.”¹⁹⁾

강진호는 언어의 논리 본성에 대한 질문이 무의미하므로, 그 질문 자체가 철학의 문제들 중 핵심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 논리’의 본질이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철학적 문제들’ 중 하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논고』는 철학적 문제인 ‘우리의 언어 논리’가 다시 ‘우리의 언어 논리’의 오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인다고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위 머리말 구절의 의미는 다음의 진술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철학적인 것들에 관해 씌어진 대부분의 명제들과 물음들은 거짓이 아니라 무의미하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물음들에 대해 결코 대답할 수 없고, 다만 그것들의 무의미성을 확립할 수 있을 뿐이다. 철학자들의 물음들이나 명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것들은 선(善)이 미(美)보다 다소 동일한가 하는 물음과 같은 종류이다.) 그리고 가장 깊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4.003)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위 머리말에서처럼 ‘우리의 언어 논리’와 ‘철학적 진술의 무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철학적 진술의 무의미란 철학적 문제를 의미하므로, 그는 ‘철학적 문제’가 ‘우리의 언어 논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 머리말 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논고』가 이종의 구조로 이뤄졌음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되, 그 ‘문제성’을 ‘우리의 언어 논리’를 통해 다룬다고 볼 수 있다. 『논고』는 ‘철학적 문제들’ 중

19) 강진호 (2007), 142-143쪽.

가장 중요한 문제로 철학적 진술의 ‘무의미’를 다루며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언어 논리’에 대한 오해에 기인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해석은 사실 위 이 글에서 제시하는 『논고』의 무의미성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언어 논리’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 철학적 문제성의 규정을 위해서는 언어의 뜻 있음과 무의미함을 구분하는 ‘우리의 언어 논리’가 요구되는데, 이 글에서 전제한 강진호의 논리 이해는 그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진호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핵심이 명제들 간의 추론적 관계에 있고, 그 내용은 사실 어떤 의미도 없는 논리 상황들이라는 점에만 집중했다. 그는 명제의 뜻 있음에 대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거꾸로 명제들의 추론적 관계 제시가 이미 명제의 뜻 있음을 전제한다고 생각했다. 강진호의 TF-표기법에 근거한 해석은 비트겐슈타인 주장하는 ‘우리의 언어 논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명제의 뜻 있음, 즉 그 참, 거짓의 가능성에 관한 적극적 해명이 더해져야만 ‘우리의 언어 논리’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그를 위해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강진호가 주목했던 4.0312의 의미를 좀 더 탐구해야 할 것이다. 거기서 비트겐슈타인의 ‘근본 사상’은 우선 우리 언어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결정적인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즉, 언어(명제)의 가능성은 ‘논리상황들의 대표성’을 통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명제)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명제의 가능성은 기호들이 대상들을 대표함을 통해 주어진다.”(4.0312) 강진호는 그의 연구에서 의도적으로 4.0312의 첫 문장을 배제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언어 논리’ 이해에 관한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4.0312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언어 논리’의 충분한 탐구를 통해, 『논고』에 등장하는 논리 외의 철학적 진술들의 의미 또한 적절히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제시되는 철학의 내용은 다시 『논고』가 다루는 “철학적 문제들”(머리말)과 연관해서 검토해야만 한다. ‘전통적 해석’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존재론, 그림이론 그리고 유아론 등을 단순히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사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위

에서 보았듯이, 『논고』가 ‘철학적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철학적 진술의 ‘무의미’를 다룰 때, 아직 다뤄야할 남아 있는 ‘철학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투 고 일: 2013. 12. 12.
심사완료일: 2014. 01. 03.
게재확정일: 2014. 01. 04.

변영진
제주대학교 철학과 강사

참고문헌

- 강진호, 『『논리-철학 논고』의 ‘중대한 오류들’』, 『철학적 분석』 제 15호, 한국분석철학회, 2007, 127-157쪽.
- Conant, James, “Throwing Away the Top of the Ladder”, *The Yale Review* 79, 1989, pp.328-364.
- Diamond, Cora, “Throwing Away the Ladder: How to Read the *Tractatus*”, in: *Philosophy* 63, 1988, pp.5-27.
- _____, “Wittgenstein”, in *A Companion to Metaphysics*, eds. J. Kim, E. Sosa and G. S. Rosenkrantz, Oxford: Blackwell (2nd ed.), 1995, pp.628-631.
- Goldfarb, Warren, “Metaphysics and Nonsense: On Cora Diamond’s The Realistic Spirit”, *Journal of philosophical Research* 22, 1997, pp.57-73.
- Hacker, P.M.S., “Was He Trying to Whistle It?”, in *The New Wittgenstein*, eds. A. Crary and R. Read, London: Routledge, 2000, pp.353-388.
- Kienzler, W., “Neue Lektüren von Wittgensteins Logisch-Philosophischer Abhandlung”, *Philosophische Rundschau*, 55, 2008, S.95-122.
- Kremer, Michael, “The Purpose of Tractarian Nonsense”, *NOÛS* 35, 2001, pp.39-73.
- Mounce, Howard, “Critical Notice: The New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24, 2001, pp.185-192.
- Proops, Ian, “The New Wittgenstein: A Critique”,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9, 2001, pp.374-404.
- Ricketts, Thomas, “Pictures, logic and the limits of sense in Wittgenstein’s *Tractatu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Wittgenstein*, eds. H. Sluga and D. Stern, Cambridge: CUP,

1996, pp.59-99.

Wittgenstein, Ludwig, *Briefe: Briefwechsel mit B.Russell, G.E. Moore, J.M. Keynes, F.P. Ramsey, W. Eccles, P. Engelmann und L. Von Ficker*, B. McGuinness u. G. H. von Wright (Hrsg.), Frankfurt a. M.: Suhrkamp, 1980.

_____,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in *Werkausgabe Band I*, Frankfurt a. M.: Suhrkamp, 1984, S. 225-580; 이영철 옮김, 『철학적 탐구』, 서울: 책세상, 2006.

_____, *Logico-philosophische Abhandlung: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Kritische Edition*, B. McGuinness u. J. Schulte (Hrsg.), Frankfurt a. M.: Suhrkamp, 1989; 이영철 옮김, 『논리-철학 논고』, 서울: 책세상, 2006.

ABSTRACT

The Unsinnigkeit of the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A Synthesis of the Traditional and New Reading

Byun, Youngjin

Wittgenstein says in 6.54 of the *Tractatus* that all propositions of the book must be finally recognized as ‘unsinnig’. However, previous interpretations that deal with the Unsinnigkeit of the *Tractatus* (the traditional and the new reading) do not offer a satisfactory answer. I pay attention to Jinho Kang’s paper to clarify the Unsinnigkeit of the *Tractatus*. Jinho Kang insists in his paper that the Unsinnigkeit of the *Tractatus* can be well explained by the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of the ‘new reading’ (or ‘resolute reading’). This paper initially introduces problems related to Jinho Kang’s claim. His problem is that he does not complement the ‘new reading’ by the ‘traditional reading’. I discuss how the Unsinnigkeit of the *Tractatus* can be appropriately interpreted by remedying his weaknesses.

Keywords: *Tractatus*, Jinho Kang, Logic, New Reading

